

제21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4. 6. 24.(월) 10:00

5 분 자 유 발 언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보내면서)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의 회
(박재완 의원)

-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보내면서 -

북구 주민 여러분, 동료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소1동, 송정동에 지역구를 둔
무소속 박재완 의원입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이 달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전몰장병 등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지정된 달입니다.

6월 6일 현충일은 ‘충렬을 드러내는 날’이라는 뜻으로
민족과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과
국토방위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이들의 충성을
기념하기 위해 1956년 4월에 지정된
국가 추념일이자 법정 공휴일입니다.

이날은 각 가정과 기관에서
호국영령을 추모하기 위한 반기를 게양하고
오전 10시 사이렌에 맞춰 1분간 묵념을 합니다.

본회의장에 계신 북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주민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난 현충일, 1분간의 묵념에 동참하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저 평소와 같이
그 순간을 지나쳤을 것입니다.

이처럼 순국선열과 호국보훈이란 말도 낯설어지고
그 숭고한 뜻 또한 우리 일상에서
잊혀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심지어 몰상식한 시민이 현충일에 대한민국 땅에서
육일기를 게시하는 말도 안 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끄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북구에도 외세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의 독립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임진왜란 당시에는 호국사찰 신흥사 주지 지운스님과
100여 명의 승병들이 왜군을 격퇴했습니다.

또한 기박산성과 관문성에서도 많은 의병들이 스스로 떨치고 일어나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 바치신
'대한광복회 총사령 고헌 박상진 의사' 생가도
북구 송정동에 있습니다.

박상진 의사는 조국 독립을 위해
본인의 모든 재산을 팔아 독립자금으로 사용했지만,
후손들은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매년 8월에 박상진 의사 추모식을 개최하지만
박상진 의사의 독립운동 정신과 헌신을 기리기에는
현재의 노력만으로는 다소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또한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한국전쟁 당시 전사한
박수기 소령 등 163명의 군경을 기리는
'농소 순국전몰군경 충혼비'가
북구 호봉사 내에 건립되어 있지만 그 외에는
매년 4월 농소 6.25. 전몰군경 합동위령제만이
봉행되고 있을 뿐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4.19 혁명에
참여했다가 순국한 유일한 울산 출신 열사인
'정임석 열사'의 묘소도 북구 천곡동에 있습니다.

4.19.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추모제가 열리고 있지만
지원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렇듯 북구에는 많은 호국영령이 계시지만
이분들을 제대로 기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모식을 거행하는 경우에도 시나 구 차원에서의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며 일부 추모사업회는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구에서 직접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 이웃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보훈가족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호국영령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일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그분들의 후예들이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살피는 일입니다.

우리가 보훈가족과 후손들을
제대로 예우하고 지원하는 것은
단순한 인도주의적 차원을 넘어 북구와 대한민국의
정신적 기반을 견고히 하고 품격을 높이는 길입니다.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점점 잊혀가는 호국보훈의 달과
현충일의 의미를 되살려야 합니다.
현충일이 단순한 공휴일 개념이 아닌
나라를 위해 몸 바치신 모든 분의 안녕을 기원하는
진정한 추모의 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 첫걸음으로 현충일 1분의 묵념과 반기 계양을
북구에서부터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 모두가 호국보훈의 의미를 가슴 깊이 새기고
기억하려 노력한다면 울산 북구를 넘어
대한민국 전역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정신이 계승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